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중등부 졸업하는 학생들 축하합니다.
- 배은준, 배혜준, 장하진
4.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6일 : 박주원 19일: 이현아
 22일 : 김보현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강지연 / 설교번역: 위충일
- 6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4주)

삼상 15:34-16:13/ 시 20 / 막 4:26-34/ 고후 5:6-17

교회세운날 2017.6.11

24-24

6월 16일 (성령강림절 후 넷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8월말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편 66:8-9,20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전미영 자매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누가복음 10:25-37절 — 인도자

설교 — 기계화된 세상 속의 인간다움이란 — 김경현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현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나눔 글 / 아빠 인생 통해 배운 인생교훈 (김현경)

나는 아빠 마흔 한 살에 태어난 막내딸이다. 드라마에서 막내 딸과 아빠 사이는 살갑고 다정하던데 우리 현실 부녀는 상당히 다르다. 우주주 막내 딸 하기엔 나는 너무 씩씩했고 딸 바보 아빠 하기엔 아빠는 상당히 무뚝뚝하셨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인생, 고민 이야기 따위는 1도 꺼내지 않는, 굉장히 촌스러운 부녀사이다. 그렇게 서먹하고 대화 없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나는 팔십해 넘은 아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용기를 얻는다.

한번도 아빠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해본 적 없으셨지만, 내가 기억하는 아빠 40대 후반, 50대, 60대에 하셨던, (의논 따윈 없었던) 가장으로서의 선택, 회사에 일어난 주요한 사건, 어쩔 수 없는 선택 들이 아빠 나이 70, 80대에 이르러 어떤 결과를 이끌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쉬운 결정, 잘한 결정, 억울했던 사건 등등. 당시에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고 축복으로 맺어지는 것을 보며,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람이란 한계로 저지른 실수와 잘한 선택, 그 사이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보였다.

시대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아빠 인생에 했던 결정 자체를 배울 수 없지만 아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인생이 꼬인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어떤 결정에도 망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인생에 꼬인 것 같은 게 꼬인 게 아니더라!)을 배웠다.

아빠 인생을 통해 확연히 보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 가정을 위한 선택에 선택을 거듭해야 하는 마흔 중반의 삶에 그렇게 힘이 된다. 한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불안감에 압도당하고 걱정에 잠식당한다. 스트레스에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때, 아빠 인생을 통해 본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듯이, 김영식의 하나님이 김현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완벽한 성공의 선택도 폭망하는 선택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결정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 아빠의 인생이 용기를 준다. 쫓지말라고, 괜찮다고 말이다.

부모의 고민 가득한 세월을 같이 보내는 우리 자녀들은 어떠할까. 그들이 사십대가 되어 칠팔십에 가까운 부모 인생을 추억하며 무엇을 생각할까. 부디, 그들은 인생의 선택에 덜 고민하고 덜 불안해하며, 지금에서야 깨닫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배운 것처럼 그들도 내 인생을 통해 동행하시고 삶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감하며 알기 바란다.

부모의 부족한 모습은 은혜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주를 의지하고 따랐던 발자국만 남길, 그것이 천국 인(印)이 되어 자녀들 인생에도 남게 되길 소망해본다. 우리 모두의 삶이 말이다.